

# 청소년지표 1991\*

## -미국 청소년복지의 추세-

천 정 응\*\*

- I. 개 관
- II. 청소년지표
  - 1. 인가와 가족구성
  - 2. 가족소득
  - 3. 교 육
  - 4. 고용과 재정
  - 5. 보건, 행태 및 태도
- III. 용어 해설

### I. 개 관

1990년 2월, 대통령과 50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교육목표를 설정했다. 여기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이를 위해 필

요한 사회구조의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공약되어 있다. 목표 Goal를 달성하기 위한 소목표 Objectives로서 보건복지와 영양을 비롯하여 사업과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지원 등 여러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지표」는 이러한 목표가 설정되기 앞서 만들어진 것으로 *predates* 1988년에 초판이 나왔다. 그러나 교육목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지표는 가족, 고용 및 보건과 같은 폭넓은 관계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14세에서 24세까지로 정의되는) 복지의 추세를 나타내 주는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 책을

\* 이 자료는 미국 교육부에서 발간한 *Youth Indicators 1991 - Trends in the Well-Being of American Youth* (Washington, D. C. : U.S. Department of Education, 1991) pp.1~148의 주요부분을 발췌·재구성하여 정리한 것이다.

「청소년지표 1991」은 주로 14~24세 청소년들의 생활과 경험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지표화하여 인가와 가족구성, 가족소득, 교육, 고용과 재정, 보건, 행태 및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전체 59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의 항목별로는 1950년부터 1991년의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구체적 물량과 빈도 백분율 등이 표와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추세에 따른 특징을 요약·제시하는 간단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여기서는 이 책의 서론으로 전체 지표를 몇가지 주제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해석·정리한 부분과 인가와 가족구성 및 가족소득 관련 지표에 대해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교육, 고용과 재정, 보건·행태 및 태도 관련 지표와 용어해설 부분은 다음 호에 게재될 것이다. 내용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국제비교적인 것은 일부 원문상의 각종 도표를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음을 먼저 밝혀 둔다.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출판했다. 이러한 시각은 10대의 임신, 자살, 약물남용에 관한 놀라운 사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의 학교졸업률 증가와 사망율 감소 등과 같이 크게 주목되지 않는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반인과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제공되며 그들은 아동, 청소년 및 가정에 관한 이슈에 점차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주와 지방정부의 관계공무원들은 교육정책을 복지, 직업훈련, 고용, 아동양육, 보건 관련 정책 및 청소년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정책들과 연계시키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들은 규율과 관료주의적 방침 *turf lines*의 제약으로 자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여유가 거의 없다. 우리는 이 시리즈가 관계공무원은 물론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인적 서비스를 통합·조정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청소년지표」에는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제 측면-가족, 근로, 교육, 보건, 행태와 태도 등을 말해주는 여러 통계가 담겨 있다. 이 자료는 자세하고 학제적인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개괄적인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후속연구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보고서의 중요한 목적은 당장 현재 상황에 관한 즉석 스냅사진 *snapshots*을 제공하기 보다는 시기별 변화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표는 가능하면 1950년 또는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데, 최근의 상황이해에 필요한 역사적 상황을 제공하게 된다. 일부 지표는 최근의 일부 연도만이 제시되는데 핵심적인 세부사항을 보여주기 때문이거나 단지 그 이전의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지표에는 표와 그림 및 간략한 내용설명이 있다. 지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특별한 분야를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된다. 보고서의 많은 그림

들은 통계수치를 도표화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간단한 설명은 각 지표의 중요한 특징을 기술하는데, 이는 독자들이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을 나타내 준다. 용어설명은 중요한 기술적 용어에 대해 정의한 것이다.

이 지표들이 미국청소년에 관한 지식 전체를 구성한 것은 아니다. 지표들의 선정 그 자체도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전반적 조건을 기술하는데 있어 완전성과 공정성을 모두 구비한 자료 *assortment*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많을 것이다. 더욱이, 새로운 자료는 우리가 제시하는 일부 경향의 변화를 알려준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들은 이 책이 계속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갱신할 계획이며 우리가 취한 접근방법에 관하여 독자들의 지속적인 질정을 바라는 바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의 의의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주요 지표로 일부분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주제를 몇가지 설정했다. 지표내용을 해석하는 일은 당연히 독자들이 해야할 것이지만 우선 이 책에 있는 자료의 성격과 본질에 관해 약간의 논평을 하기로 한다. 다음의 글들은 미국청소년의 발전추이에 관한 독자들의 견해와 비교·대조하는데 참고사항이 되기 바란다.

## 1) 청소년 인구

출산율의 변화는 크거나 작은 연령집단(출생 코호트: birth cohorts)이 학교를 거쳐 성인기로 옮겨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원이 되고, 중국에는 은퇴하게 되는 수십년동안 그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 출생집단(코호트)의 규모가 크면 학교 건축과 교사 고용의 증대 및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초래하며, 집단(코호트)의 규모가 감소되

면 그 반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청소년 인구의 변화 추이는 학교, 대학 및 노동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추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큰 인구 팽창을 가져왔던 “베이비 붐” 출산파동이다. 당시의 인구 팽창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초·중등학생의 수를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뒤이어 학교 건축 파동을 초래하고 수백 수천의 신규 교사의 수요를 창출하였다. 1970년대에는 이러한 “베이비 붐”의 여파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함으로써 결국 학생 수가 격감되고 학교의 활용이 저하되었으며 때로 교사가 남아 돌게 되었다. 한편 이 “베이비 붐”은 전례없던 수의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취업 *entry-level jobs*에 대한 치열한 경쟁과 임금 수준의 하락을 초래하면서 진정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팽창이 일단의 연령집단(코호트: *cohortage*)구성원들이 은퇴연령에 이르게 됨에 따라 퇴직연금기금 *retirement funds*과 보건복지 서비스에도 유사한 압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베이비 붐의 당사자”들은 21세기 벽두에 사회보장급부를 받게 된다는 점을 지켜 볼 가치가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인구통계적 경향은 출산율의 감소현상이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요한 예외사항의 하나로는 1960년대 중반 이래 보게 되는 미혼여성의 출산율 증가를 들 수 있다. 미혼 백인 여성과 15~19세의 미혼여성들은 최대의 출산율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50년에는 10대 미혼 백인 1,000명 중 5명이 자녀를 가졌으며 1988년경 그 수치는 1,000명당 25명으로 증가했다. 비록 흑인 10대들의 출산율이 백인 10대들 보다 3배이상 되었지만 흑인의 출산율은 후반에 다소 떨어졌다.

대부분의 이러한 미혼여성 출산율 증가는 통계적으로는 청소년들의 결혼율이 감소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0대 미혼 백인의 출산율이 급격히 올라간 반면, 이 연령집단 전체의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출산여성 전체와 비교하여 미혼여성 비율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산업국가와 비교하면 모든 국가간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에서의 미혼여성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23%). 예컨대 스웨덴에서는 1986년 아동의 48%가 미혼 여성에게서 태어났으며, 같은 해 일본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의 1%만이 미혼모에 의한 것이었다.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혼외 출산 *out-of wedlock births*의 증가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과 함께 사는 (편친)아동의 구성비 증가라는 또 다른 현상을 초래하였다. 1989년에는 18세 이하 전체 아동의 약 22%가 편친가정에서 살았으며 1965년의 그 비율은 단 10%였다. 소수민족계 아동의 수치는 이 보다 훨씬 더 높다. 1989년에는 히스패닉계의 약 20%와 전체 흑인아동의 약 54%가 편친과 살았다.

가정은 대체로 지난 20여년 동안 특히 1970년과 1980년 사이 두드러지게 위축되었다. 1980년 이래, 가족당 자녀수는 평균 2명 이하로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자녀의 대부분은 형제·자매가 없게 될 것이며, 그 전형은 한 자녀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출생율이 다시 증가되지 않으면 국가인구는 이민을 통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2) 성인기로의 이행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두드러진 변화는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이행기간이 뚜렷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몇가지 징후가 이러한 현상을 분

명히 하고 있다. 여성들의 결혼연령과 출산연령이 높아졌으며 젊은 성인들이 부모들과 함께 동거하는 기간이 보다 많아지며 더욱 길어지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률이 다소 높아지고 대학에 가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 대학진학은 보다 높은 보수의 직업을 갖게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또한 전일제 취업 노동력으로서의 진입을 지연시키며 수업료의 계속적 증가를 수반한다. 교육은 이점도 많지만 교육과정의 연장으로 많은 비용이 들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업을 끝마칠 때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한다. 독립한 후에도 청소년의 전일제 취업 소득은 수년동안 다른 연령집단에서와 같이 급속하게 증가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의 연장으로 청소년의 혼인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비교적 낮았다(약 20세). 1975년과 1987년사이 그 연령이 급속히 올라가 그 짧은 시기에 평균 24세에 달하고 있다.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18세~24세 여성의 결혼율이 매우 떨어졌다. 오늘날의 결혼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낮다. 달리 말하면, 나이든 여성(25세에서 44세)의 비율은 1975년과 1987년사이 계속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1890년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890년에는 미국 최초로 그에 관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러한 추세에 의미를 논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지체를 경제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본다. 젊은 남자와 여자의 소득력 손실과 청소년의 대학진학 수의 증가(이 책에 자료가 있음)는 여성의 결혼 지체 이유를 추론하게 해 준다.

미국에서의 결혼율이 떨어진 반면 이혼율은 상

당히 증가되었다. 이혼율의 증가는 대부분 1965년과 1975년 사이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나타났다. 1975년 이래 이혼율의 변화는 훨씬 더 적어졌으며 1980년 이후 그 비율은 다소 떨어졌다. 이 자료에서 특히 1980년 이래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 가정의 지속적인 해체를 의미한다기 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난 4반세기에 걸쳐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결혼율과 이혼율은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다. 최근 이혼율은 외견상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18세이하의 아동의 100만명 이상이 아직도 매년 가족의 해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백만명 이상이 편친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편친세대에 대한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의 조사결과와 같이 경제적 결과도 이미 분명하다. 편친가정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기 쉬운 데 다음은 그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 3) 경제적 복지

가족의 평균 규모가 줄어든 반면 평균 소득은 최근 안정되었다. 1950년과 1970년사이 가계소득(인플레이 감안한 중간값)은 상당히 상승했다. 그러나 그 후 12년동안에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82년 이후 가계소득은 다소 증가하여 1989년에는 최고 34,213 달러에 이르렀다. 가족의 규모가 작아진 것과 함께 이러한 소득수치는 가족원당 소득이 증가함을 나타내 준다. 대체로 미국 가정은 점차 경제적인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서로 다른 두가지 경향을 보여 준다. 전일제 취업 남자 전체의 평균소득은 1975년과 1989년 사이에 떨어졌으며, 이러한 소득감소로 보다 많은 가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게 되었다. 기혼여성은 주로 가사노동에 종사하였다. 1960년에는 6~17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기혼 여성 중 39%만이 일했다. 1980년에는 그 비율이 62%였으며 1990년에는 74%였다(참가율 증가의 일부는 시간제 취업이 포함된 것이다). 보다 더 극적인 것은 6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족의 기혼여성 취업이 1960년 19%에서 1990년 59%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가족소득이 안정적인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가정 밖에서의 여성취업의 증가와 여성임금의 상승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벌이 가족 *two-wage-earner families*의 증가는 1975년과 1989년사이 가계소득을 8% 증가하는데 기여했다.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그 반면 많은 가족 특히 편친가족은 재정적 곤란을 받고 있다. 1989년에는 18세이하 아동의 약 19%가 빈곤하게 살았다. 그 비율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백인아동은 14%이며 흑인아동은 43%였다. 이러한 빈곤을 수치는 대개 1970년에 높게 나타나지만 1960년의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 것이다. 아동빈곤 *child poverty*은 주로 편친 가정에 집중되었으며 대부분은 편모가족이다. 1989년에는 빈곤아동 전체의 57%가 편모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한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가진 대부분의 미혼 여성들은 직장을 갖고 있다. 1990년에는 6세에서 17세의 자녀를 가진 전체 이혼여성의 약 86%, 전체 별거여성의 75% 및 전체 혼인 미경험 여성 *never-married women*의 70%가 노동력에 포함되어 있다.

젊은 여성과 남성의 노동력 참가를 비교하면 가족의 노동양식 변화에 따른 영향과 결혼의 지체 특히 여성들 간의 결혼지체의 영향을 알게 된다. 젊은 남자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1950년에서 1989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950년에는 20세에서 24세 남성의 약 89%가 노동력에 포함되었으며 1989년에는 85%였다.

대조적으로, 20세에서 24세 여성의 비율은 1950년 46%에서 1989년 72%로 증가했다. 여성의 노동력 참가가 대부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많이 발생했으며 1980년대에도 계속 조금씩 증가했다.

모든 연령에서 여성의 노동력 참가가 폭넓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 외에도 오늘날 청소년의 관심사 중 일부는 좋은 보수를 보장하는 일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다. 청소년 특히 흑인청소년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업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소득수준 증가율이 연장자들의 소득수준 증가율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일제 취업자들의 연간 소득이 1955년과 1970년(인플레이 감안)사이 급속히 오른 반면 남성들의 경우는 1970년의 소득 증가보다 1989년의 소득은 더 낮게 증가되었다.

계속된 높은 노동참가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취업 남자 전체의 실질소득은 실제로 1970년과 1982년 사이에 5%가 떨어졌으며 그에 따른 손실은 1980년대 초의 경기침체 이후 1989년경 일부가 회복되었다. 전일제 취업한 젊은 남성들의 소득은 다시 오르지 않았다. 1987년 20~24세 남성의 연간 실질 소득은 1970년 당시보다 25% 더 낮았다. 동시에 전일제 취업 여자 전체의 실질소득은 약 10% 상승했지만 20~24세 여성들의 실질 소득은 약 11% 줄어들었다. 여성의 소득수익이 남성과 비례하여 보수동등성의 면에서 다소 개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반면 젊은 성인들의 소득력 손실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앞서 고찰했듯이 이러한 사실은 결혼과 아동양육 지체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젊은 성인의 주거양식 *living arrangements*은 그들의 소득이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예를 들면 부모와 함께 사는 18세~24세의 구성비는 1960

년 43%에서 1980년에는 48%로 올라갔다. 1980년과 1989년 사이 그 수치는 52%로 높아졌다. 대조적으로 배우자(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님)와 함께 사는 18세~24세의 수는 1960년 42%에서 1989년에는 23%로 감소되었다.

#### 4) 보 건

24세까지 살게 되는 청소년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진 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류의 보건문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질병보다는 행태에서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15세에서 24세 남성 100,000당 사망자 수는 1950년 168명에서 1987년에 146명으로 줄어들었다. 젊은 여성의 경우는 89에서 52로 낮아졌다. 이는 의학의 진보와 기타 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낮아지지만, 이 시기동안 청소년들의 질병에 의한 사망율도 감소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다른 한편 살인과 자살에 의한 사망율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백인남자의 자살율이 여성이나 소수민족계 남성의 자살율보다 높다. 그러나 살인율은 소수민족계 남성들이 여성이나 백인남성의 경우보다 더 높았다.

한가지 긍정적인 것은 1989년에 약물을 불법 복용한 고등학교 상급생의 비율(51%)은 1975년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 사실은 최고 높은 비율을 보인 1980년과 비교할 경우 긍정적인데, 당시 상급생의 65%가 약물을 불법으로 복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난 30일 동안 약물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상급생의 비율도 1980년 37%에서 1989년 20%로 떨어졌다. 끝으로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체력과 신체적 상태 *fitness* 를 측정할 항목에서는 1980년 보다 1989년에 더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래달리기 부문만이 유일하게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5) 교 육

교육지표는 몇가지 긍정적 사실을 알려준다.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1950년대 보다 오늘날 훨씬 더 높은 것이 확실하다. 1950년에는 25세에서 29세 중 겨우 절반(53%)이 고등학교를 마쳤으며 8%만이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 1988년에는 그 수치가 고등학교 졸업률이 86%와 4년제 대학졸업률이 23%으로 각각 상승했다. 소수민족계 청소년의 경우도 고등학교 졸업률이 24%에서 82%로 상승함으로써 훨씬 더 큰 폭으로 향상되었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의 학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SAT) 성적은 1965~1966년과 1980~1981년 사이에 내려갔으나, 이 점수는 시험참가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시험자체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도 아니다. 전국적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시험으로서 전국교육평가 *NAEP: National Assessment for Educational Progress*의 성적을 보면 1979~80년 사이와 1987~88년 사이에 독해점수는 별달리 나아진 것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본 독해 또는 그 이상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독해점수가 향상되었으며, 17세 흑인의 성적이 올라간 것은 다소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개선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실 백인과 흑인, 백인과 히스패닉계 간에는 점수 차이가 매우 크지만, 독해, 수학, 과학에서는 지난 20년간 많이 줄어들었다. 이 책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NAEP의 다른 결과는 1977년과 1986년 사이에 학생들의 기초수학과 과학실습 성적이 다소 향상되었지만 중급정도의 실험성적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최근의 한 젊은 성인에 대한 검사결과는 거의 모든 성인들이 기본

적인 기능적 문맹상태에 있음을 밝혀주었다.

1988년 미국 8학년들은 한 시험에서 수학과 과학성적이 6개 국가와 캐나다의 4개 주 학생들 중에서 하위 3등에 속하는 성적을 기록했다. 1983년과 1986년에 치른 국제 과학시험에서 미국 14세들의 점수는 다른 12개 국가의 또래집단들 보다 조금 더 낮으며, 1개 국가 보다는 더 높고 홍콩, 싱가포르, 태국과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학생들의 성적은 초·중등학교에서는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자들은 현재의 학력 성적수준이 장래 미국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 6) 시민권과 가치관

미국 청소년들은 어떻게 미국의 국민으로 계발되어 가는가? 투표행태에 관한 자료를 보면 1988년 대통령선거에서는 18세~24세 청소년 가운데 36%만이 투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24세 이상의 사람들은 61%가 투표했다. 1972년과 1988년 사이에는 흑인청소년의 투표율이 백인 투표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만약 투표자료를 통해 미국청소년이 전통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다른 지표들을 통해서도 그와 다른 점도 알 수 있다. 1982년의 고등학교 상급생(1986년에 조사되었음)은 최상의 목적으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과 좋은 직업을 찾는 것을 지적하였다. 1972년 상급생(1976년에 조사되었음)과 비교하면 1982년의 상급생들은 부모와 친밀하게 생활하는 것과 자신들의 자녀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 \* \* \* \*

지금까지 우리는 도표의 자료를 해석하지 않고 이야기를 줄이면서 실례를 들어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일부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통계자료와 그 시기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이미 어떤 해석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평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에 있는 정보를 조사하고 해석하는 욕구를 붙여 넣어 주는 점에 입각해서 그 성과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지표들을 상호 관계시켜 분석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20대의 청소년들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재정적·사회적으로-연령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생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청소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갖는 시기가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베이비 붐”과 여성노동력의 증가는 청소년들이 반드시 직면하는 힘든 선택을 복잡하게 하면서 대단한 취업경쟁을 초래하였다. 자료와 자료간의 제반 상호관계를 세밀하게 다듬는 것과 원인과 효과에 관한 이슈를 고려하는 것은 독자들이 해 줄 것으로 바라는 중요한 작업이다.

더욱이 이 책에는 청소년들의 생활에 관한 중요한 지표가 일부 빠져있는데, 이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동 학대, 가출 및 약물중독아동에 관한 수치들은 일반인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그 자료를 구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웠다.

사람의 생활에 관해 보다 더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들 또한 발견하기 어려웠다. 최근의 3가지 조사연구는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빈도를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데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일 *family dinner*이 청소년의 행태와 성취에 주는 영향을 문서로 증명하는 것

은 보다 더 힘든 일이다. 가족의 식사 관습에 관한 종단적 자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청소년의 생활에서 보다 세밀한 측면-친구에 대한 애착, 장래에 대한 통제감, 익명 anonymity을 취급하는 방법, 성인들이 청소년복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가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정보가 없는 점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다음부터 제시되는 지표들이 미국 청소년의 실체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도 해야 될 일이 매우 많이 남아 있음을 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을 대강 마음에 새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강조하는 관련사항 connections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할 것

이지만 그에 대해 일부 대답해 줄 것임을 또한 믿는 바이다.

## II. 청소년지표

### 1. 인구와 가족구성(Demographics and Family Composition)

#### 1) 청소년 인구

14-24세 청소년의 총인구 대비 구성비는 '베이비 붐' 때문에 1955년 15%에서 1975년 21%로 증가했으며, 1975년과 1989년에는 21%에서 16%로 낮아졌다(〈표 1〉).

〈표 1〉 청소년 인구 (1960~1989)

(단위 : 천명, %)

연도	총인구	청소년인구				
		계	14~17세	18~19세	20~21세	22~24세
1960	179,979 (100.0)	26,964 (15.0)	11,211 (6.2)	4,886 (2.7)	4,443 (2.5)	6,435 (3.6)
1970	203,984 (100.0)	39,909 (19.6)	15,921 (7.3)	7,410 (3.6)	6,650 (3.4)	9,728 (4.8)
1975	215,465 (100.0)	44,860 (20.8)	17,125 (7.9)	8,413 (3.9)	8,089 (3.8)	11,228 (5.6)
1980	227,255 (100.0)	46,223 (20.3)	16,140 (7.1)	8,713 (3.8)	8,654 (3.8)	12,716 (5.6)
1985	238,736 (100.0)	43,365 (18.2)	14,865 (6.2)	7,500 (3.1)	8,166 (3.4)	12,814 (5.4)
1989	248,239 (100.0)	39,841 (16.0)	13,496 (5.4)	7,643 (3.1)	7,317 (2.9)	11,385 (4.6)

#### 2) 청소년 인구 추이

1990년대 초반 고교연령 인구는 증가할 것이며, 그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는 대학연령 인구

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14세~17세 청소년 수는 1990년과 1995년 사이 9% 증가할 것이며, 그 이후 5년간 9% 더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1990년대의 전반 5년 동안에는 18세~24세 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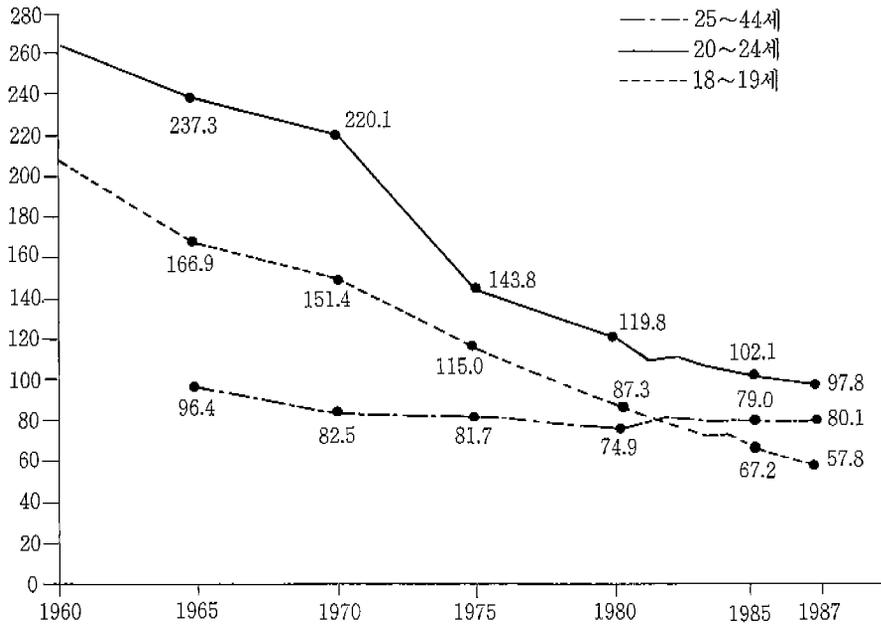
소년 수의 8%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향은 그 뒤 5년간에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인구는 백인보다 소수민족 집단 사이에서 더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1990년과 1995년 사이 14~17세 백인청소년의 수는 히스패닉계와 흑인들의 11%와 비교하여 7%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백인 히스패닉계의 21%와 흑인의 18%와 비교하여 14~17세의 백인청소년의 수가 단 6% 증가함에 비취볼 때 1990년대 후반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결혼

여성들은 결혼을 지체하고 있다. 1960과 1987년 사이 18~24세 여성의 초혼율 *first-marriage rates*은 떨어졌으며 25세에서 44세 여성의 초혼율은 1970년과 1987년 동안 안정된 채로 있다. 젊은 여성들의 이러한 변화로 남성들의 초혼연령도 비슷하게 증가되었다.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87년 25세였으며 1975년에는 23세였다 ([그림 1]).

[그림 1] 연령별 혼인미경험 여성 1,000명당 초혼자 수(1960~1987) (단위: 명)



### 4) 이혼

연간 이혼수는 1965년과 1975년 사이 116%로 크게 증가했으며 1989년의 경우 1975년보다 12%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율(기혼여성 1,000명당 이혼수)은 1979년 23명으로 최고에 달했으며, 그 뒤부터 1,000명당 약 21명으로 다소 내렸다.

1987년 이혼에 관련된 아동의 수는 약 1백만명이었다. 1976년 이래로 이혼에 관련된 18세이하 아동의 수와 비율은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

### 5) 결혼율과 이혼율

미국의 결혼율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 3 참조)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보다 실질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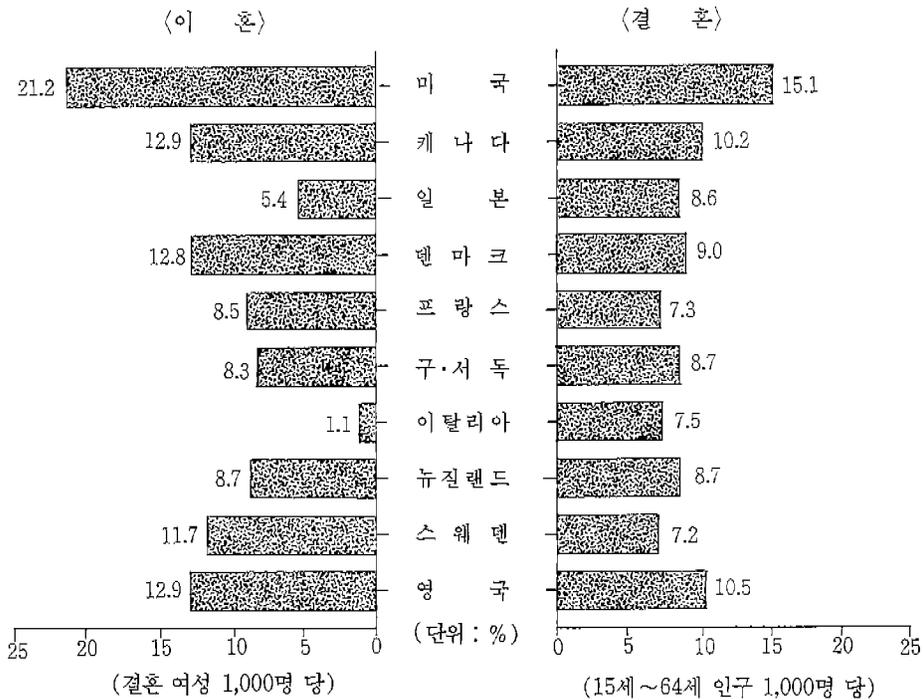
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70년과 1986년 사이 다른 8개 산업국가의 결혼율은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결혼율은 1970년 성인 1,000명당 14.4명에서 1986년에는 8.6명으로 낮아졌다. 동시에,

미국의 경우는 17.0에서 15.1로 감소하였다.

미국은 또한 다른 국가들보다 이혼율도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80년 이래 이들 국가에서의 이혼율은 올라갔으며 반면에 미국은 다소 낮아지고 있다([그림 2]).

[그림 2]

10개국 결혼·이혼율(1986)



### 6) 출산

여성의 출산율은 1960년 이후 모든 연령집단에서 매우 낮아졌다. 20~29세 여성의 출산율은 1960년에 최고로 높았으며, 그 이후 1975년까지 급격히 떨어졌다. 20대 여성의 출산율은 1975년 이래로 비교적 안정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30~34세 여성의 출산율은 1975년 1,000명당 52명에서 1988년 1,000명당 74명으로 올라갔으며, 소수민

족계 여성의 출산율은 특히 젊은 연령집단에서 백인여성들보다 더 높다. 15세~44세 여성 1,000명당 출산자 수는 백인여성의 경우 63명, 흑인과 기타 인종은 88명이었다.

### 7) 미혼여성의 출산율

1960년과 1975년 사이 20~24세의 “흑인 및 기타 민족”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매우 낮아졌다. 1975년과 1988년 사이 백인과 소수민족계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올라갔다. “흑인 및 기타 민족” 미혼 10대들의 출산율은 1975년과 1988년 사이 비교적 안정적인 반면 백인 10대들의 경우는 올라갔다. 아직도 15~24세의 “흑인 및 기타 민족” 미혼 여성의 출산율은 백인여성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8) 미혼여성의 출산율 : 국제비교

1960년 이래 많은 산업국가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출산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1960년과 1980년 동안 미국의 출산율은 12% 내려갔으나 서독의 경우 55%, 이탈리아는 39%로 돌입했다.

미혼여성의 출산수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급속하게 증가했다. 미혼여성의 출산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국가별로 매우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스웨덴의 48%와 덴마크의 44%와 비교하여 일본의 경우 1986년도 출산의 단 1%만이 미혼모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의 비율(23%)은 프랑스(22%)와 영국(21%)과 비슷하지만 캐나다(17%)와 서독(10%)보다는 높다 (<표 2>).

9) 자녀가 있는 가족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족의 비율은 1970년과 1990년 동안 감소한 반면 편친가족의 비율은 증가했다. 가족구조는 민족/인종 집단별로 매우 상이하다. 1990년에는 자녀를 가진 흑인 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편친가족이었다. 흑인 가족의 59%와 히스패닉계 가족의 63%와 비교하여 백인 가족은 전체의 약 49%가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표 2> 전체 출산 대비 미혼여성의 출산율

(단위 : %)

국가	1960	1970	1980	1986	실제출산변화비율 ('60~'86)	
					전체	미혼여성
미 국	5.3	10.7	18.4	23.4	-12	292
캐 나 다	4.3	9.6	11.3	16.9	-22	209
덴 마 크	7.8	11.0	33.2	43.9	-27	308
프 랑 스	6.1	6.8	11.4	21.9	- 5	243
구·서 독	6.3	5.5	7.6	9.6	-55	- 2
이 태 리	2.4	2.2	4.3	5.6	-39	41
일 본	1.2	0.9	0.8	1.0	-14	-26
네 델 란 드	1.3	2.1	4.1	8.8	-23	403
스 웨 덴	11.3	18.4	39.7	48.4	0	329
영 국	5.2	8.0	11.5	21.0	-18	231

10) 편친가족의 자녀

편친 가족 아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데

1989년에는 아동의 22%가 편친가족에서 생활하였으며, 1970년 그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1989년에는 흑인 아동의 1/2이상이 편친가족에

서 살았다.

### 11) 청소년의 주거양식

18~24세 청소년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1980년과 1989년 사이에 증가했다. 자신의 가족(가족세대주)을 가진 세대의 청소년 비율은 감소했다. 혼자 살거나, 집단거주 또는 공동아파트 거주 등의 주거양식 arrangements 이 다른 청소년의 비율은 1970년대에 증가했으나 1980년대 동안에는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2. 가족소득(Family Income)

### 1) 가족소득

가족 전체의 소득(인플레이 감안 중간값)은 최근 변동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가족소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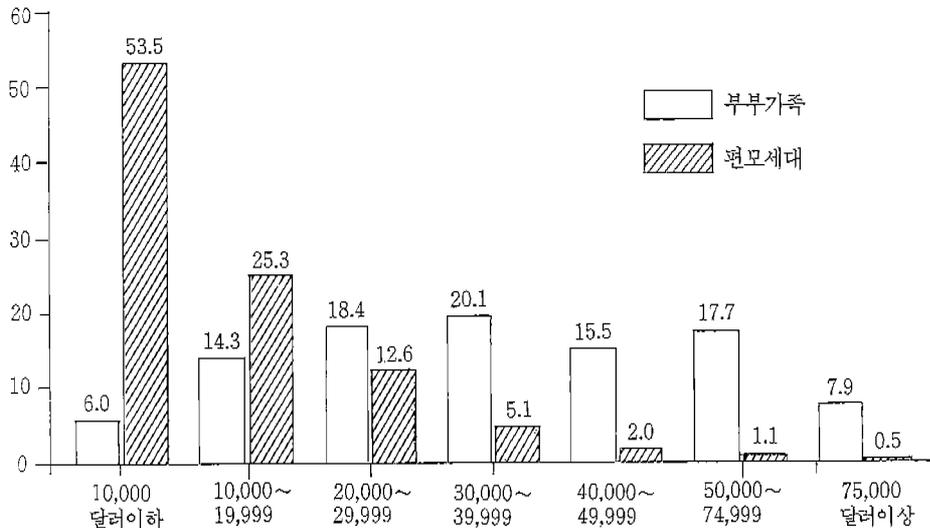
상당히 증가했던 것과 대조하여, 1970년대는 가족소득이 거의 증가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가족소득은 1980년대 초반 약간 감소된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9년 34,200달러가 되었다. 가족소득은 소수민족계 가족과 백인가족간에 상당히 큰 격차가 있으며 1970~1989년 동안에도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다.

### 2) 가계총소득

1987년, 편모세대 households의 18세이하 아동 중 54%는 소득이 10,000달러 이하인 가정에 살았다. 부부가족 아동의 약 61%는 소득이 30,000달러 이상인 가족에서 살았다. 편모세대 아동의 경우 9%만이 30,000 달러 이상 소득이 있는 가족에서 살았다. 부부가족의 아동 중 26%는 부모의 소득이 50,000달러 이상이다([그림 3]).

[그림 3] 소득집단 및 가족형태별 18세이하 천자녀비율(1987)

(단위 : %)



주 : 가족형태별 전체가족의 자녀수(부부가족 : 45,342천명, 편모세대 : 10,906천명)를 각 100%로 본 비율임.

### 3) 빈곤

빈곤아동의 비율은 1960년대에는 매우 감소되었으나, 1970년 이후 증가하였다. 1989년에는 전체 아동의 19%와 편모가족(남편 부재의) 아동의 51%가 빈곤아동이었다. 소수민족계 아동들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1989년에는 전체 흑인 아동의 약 43%와 전체 히스패닉계 아동의 36%가 빈곤아동이었다. 편모세대 가난한 아동의 비율은 전체 아동과 대비하여 1960년 24%에서 1989년 57%로 되었으며 흑인 아동과 대비해서는 29%에서 76%로 크게 증가하였다.

### 4) 연방가족보조금

부양아동가족보조금 (AFDC :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Program)을 받는 아동의 수와 비율은 1960년대에 연방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대폭 증가되었다. 1975년 이래 AFDC 수혜 아동의 수와 그 비율은 비교적 많이 변동하지 않았다.

### 5) 자녀부양지원

자녀부양금을 부담하는 부친의 비율은 1978년과 1987년 사이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1987년 자녀부양지원금을 받는 여성의 약 절반은 그 해에 완전 부양권(full entitlement)을 인정 받았으며 약 1/4은 부양지원금을 일부 받고, 1/4은 부양금(payment)을 받지 못했다.

### 6) 양친의 취업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기혼 직장여성 *women*의 수와 비율은 1975년과 1988년 사이 크게 높아졌다. 기혼 직장여성 *mother*의 비율도 1975년

41%에서 1988년 62%로 올라갔다. 1988년에는 자녀를 가진 부부가족의 58%는 양친이 모두 일했다. 여성의 가사의 노동의 증가로 자녀를 가진 가족은 많이 변모하였다. 1975년 당시 가장 공통적인 패턴은 부친들만이 집 밖에서 일하는 것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1988년의 지배적 패턴은 양친이 모두 일하는 것이었다. 비록 대다수 편모가족이 여성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가장인 가족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0년과 1988년 사이 남성이 가장인 편부가족의 수는 69%, 여성이 가장인 편모가족의 수는 17%로 높아졌다 (<표 3>).

### 7) 모친의 취업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노동력 참가율은 1950년 이래로 증가하였는데 1970년과 1990년 사이 그 비율은 30%에서 59%로 높아졌다. 6세 이상의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 보다 더 높으며 또한 증가했다. 1990년에는 6세~17세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거의 3/4이 가정 밖에서 일했다.

### 8) 자녀 양육비용

1989년 통계에 따르면, 중서부 도시지역 보통 수준에서 출생한 경우 18세까지 자녀양육 평균비용은 105,000 달러였다. 중서부 농촌지역에서의 자녀양육비용은 이 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주택비 및 식비가 총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4>)

### 9) 대학 경비

대학 수업료, 하숙 및 기숙비용(인플레이션 감안)은 1970년대 후반 약간 감소하였다. 1980년 이

래 학생부담금은 실질상 증가했는데 특히 4년제에서는 31%가, 사립대학에서는 51%가 각각 올랐다(<표 5>).

~90년 사이 수업료와 숙식비는 4년제 공립대학

<표 3> 가족유형별 18세이하 친자녀가족의 취업상태 (단위:천명, %)

가족 유형/연도		1975	1980	1985	1988	비고
가족 총 수		55,698 (100.0)	59,910 (100.0)	63,232 (100.0)	65,670 (100.0)	
친자녀가진 가족총수		30,060 (54.0)	31,325 (52.3)	31,496 (49.8)	32,347 (49.3)	18세이하
부부가족	소 계	25,236 (100.0)	24,974 (100.0)	24,225 (100.0)	24,611 (100.0)	18세이하 친자녀를 가진 가족
	양친취업	9,358 (37.1)	11,925 (47.7)	12,844 (53.0)	14,271 (58.0)	
	부친만취업	13,441 (53.3)	10,975 (43.9)	9,227 (38.1)	8,365 (34.0)	
	모친만취업	895 (3.5)	852 (3.4)	960 (4.0)	1,005 (4.1)	
	양친실업	1,543 (6.1)	1,222 (4.9)	1,194 (4.9)	968 (3.9)	
편모가족	소 계	4,400 (100.0)	5,718 (100.0)	6,345 (100.0)	6,666 (100.0)	18세이하 친자녀를 가진 여성 가장 가족
	편모취업	2,635 (59.9)	3,833 (67.0)	4,302 (67.8)	4,481 (67.2)	
	편모실업	329 (7.5)	421 (7.4)	561 (8.8)	462 (6.9)	
편부가족	소 계	424 (100.0)	633 (100.0)	926 (100.0)	1,070 (100.0)	18세이하 친자녀를 가진 남성 가장 가족
	편부취업	369 (87.0)	561 (83.6)	834 (90.1)	965 (90.2)	
	편부실업	42 (9.9)	47 (7.4)	84 (9.1)	95 (8.9)	

주: 친자녀에는 세대주의 외붓자녀·입양자녀 포함

〈표 4〉 중서부 도시·농촌지역의 평균 자녀양육비 (1981,1989)

(단위: \$, %)

연 도	지 역	전 체	식 비	의 복	주 택	의 료	교 육	교 통	기 타
1981	도 시	104,080 (100.0)	25,223 (24.2)	7,724 (7.4)	35,012 (33.6)	5,405 (5.2)	1,540 (1.5)	17,450 (16.8)	11,724 (11.3)
	농 촌	97,077 (100.0)	23,367 (24.1)	7,195 (7.4)	32,858 (33.8)	4,947 (5.1)	1,540 (1.6)	16,767 (17.3)	10,403 (10.7)
1989	도 시	105,055 (100.0)	24,269 (23.1)	6,922 (6.6)	34,100 (32.5)	7,056 (6.7)	2,208 (2.1)	15,930 (15.2)	14,570 (13.9)
	농 촌	97,838 (100.0)	22,484 (23.0)	6,446 (6.6)	32,004 (32.7)	6,454 (6.6)	2,208 (2.3)	15,310 (15.6)	12,932 (13.2)

주: 식비는 가정내외 식사비, 학교 점심 포함, 주택비는 평열비와 주택부대시설비 등 포함, 교육비는 8세~17세의 수업료, 책값 등 용돈 비용과 기타 학교관련 비용 포함. 단 유치원, 주간탁아비, 과외교육비 및 18세 이상의 대학비용은 제외. 교통비는 자동차 구입 및 공공교통비 포함. 기타비용에는 여가, 독서, 기타 제 잡비 포함.

〈표 5〉 대학유형별 대학생 평균 경비 (1959-60~1989-90)

(단위: \$)

연 도		4년제 공립대학			4년제 사립대학			2년제 대학	
		계	수업료	숙식비	계	수업료	숙식비	공립수업료	사립수업료
1959 ~1960	경상가	810	200	610	1,510	791	719	74	444
	불변가	3,500	864	2,636	6,525	3,418	3,107	320	1,919
1969 ~1970	경상가	1,237	357	880	2,551	1,557	994	178	1,031
	불변가	4,158	1,200	2,958	8,578	5,234	3,341	598	3,476
1979 ~1980	경상가	2,328	738	1,590	5,013	3,225	1,788	355	2,062
	불변가	3,808	1,207	2,601	8,199	5,275	2,924	581	3,373
1985 ~1986	경상가	3,858	1,318	2,541	9,230	6,121	3,108	641	3,672
	불변가	4,503	1,538	2,965	10,769	7,142	3,627	748	4,285
1989 ~1990	경상가	4,978	1,781	3,198	12,349	8,446	3,902	758	5,324
	불변가	4,978	1,781	3,198	12,349	8,446	3,902	758	5,324

주: 경상가는 해당연도 당시 금액이며 불변가는 1989~1990년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 것임.